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韓國生藥協會
社団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電話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특별기고」
- 「일본」 생약농업 현황 3면
- 약용연구 기관을 찾아서 4면
- 시세동향 5면
- 수입·국산약재 선별요령 6면

수입 엑기스 선호 농민반발



◇ 국내 재배되고 있는 지황밭

초재보다 엑스제가격저렴이 선호이유
수입후에도 다른 질차생략, 자가품질관리

최근 제약회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품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 엑기스로 추출되고 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하는 제약업체가 최근 몇년 전부터 한약재를 엑스화시킨 원료를 수입, 제약원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점이

무료 건강강좌 개최

지난달 15,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회장 이종우)는 9월 15일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소비자보호위원장이기도 한 이종우 회장이 참석하여, 한약재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강사는 한약재의 수입과 국산약재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주었다.

국내재배지황판류 불인

수급조절위, 지황5백톤 수입키로

최근 수급조절위(수급조정위원회)는 국내재배지황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수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재배지황의 수급이 부족하여, 국내재배지황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수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재배지황의 수급이 부족하여, 국내재배지황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수입키로 결정했다.

또한 수입 후에도 품질검사와 다른 질차생략, 자가품질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재배지황의 수급이 부족하여, 국내재배지황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수입키로 결정했다.

“우리 약재는 우리 손으로 지켜 가야 합니다”

생약재는 오천년 역사 속에서 조상대대로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가격경쟁이 안된다고 재배를 포기해서야, 비싸다고 우리것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것 '하나'를 지키는 일이 남의 것 '두개'를 차지하는 것 보다 더욱 값진 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